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와 KCI(Korea Citation Index)의 2004년도 영향력지표값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KoMCI 2004 and KCI 2004 Impact Factors

허 선* · 이 춘 실**

Sun Huh · Choon-Shil Lee

차 례

1. 서 론	4. 결 론
2. 연구방법 및 범위	· 참고문헌
3. 분석결과	

초 록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영향력지표인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2004의 결과값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산출한 우리나라 학술지의 영향력지표인 2004년도 KCI(Korea Citation Index)에 공통으로 포함된 의학학술지의 영향력지표(impact factor, IF), 자체인용계의 영향력지표(ZIF), 자체인용 영향력지표(SIF) 값을 비교하고, 왜 이 두 가지 지표 값 사이에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oMCI와 KCI에 공통으로 등재된 의학학술지 중 양쪽에 모두 2004년도 영향력지표 값이 있는 경우는 59종이었다. KoMCI IF 평균과 KCI IF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KCI 값은 KoMCI의 18%이었다. KoMCI ZIF 평균과 KCI ZIF 평균은 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KCI 값은 KoMCI 값의 23.5%이었다. 자체 인용에 의한 영향력지표는 KoMCI SIF 평균이 0.13, KCI 평균이 0.0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이러한 차이는 KCI의 인용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전자통제(authority control)하지 않고, 학술지 논문에 저자가 기술한 상태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이 KCI를 학술지평가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유일성을 확보하는 전자통제를 반드시 시행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향력지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키 워 드

의학학술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유일성, 영향력지표, 전자통제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대한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 위원 (Professor, Dep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 Editor,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Project,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shuh@hallym.ac.kr)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한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 위원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 Editor,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Project,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cslee@sookmy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15일
 • 게재확정일자: 2005년 9월 20일

ABSTRACT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began developing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KoMCI) database in 2002, and has announced the impact factors of Korean medical journals published since 2000. In July 2005, Korea Research Foundation also announced the KCI impact factor of journals covering all subject areas for the year 2003 and 2004. We compared the impact factor(IF), impact factor excluding self-citation(ZIF), and self-citation impact factor(SIF) of KoMCI 2004 and KCI 2004 in order to disclose why there is such a great difference in the values of impact factors between two databases. Out of 72 medical journals in both database, 59 journals were compared after excluding the missing data in KCI. Mean IF of KoMCI 2004 was 0.2 and that of KCI 2004 was 0.03($p=0.0000$). Mean ZIF of KoMCI was 0.06 and that of KCI was 0.01($p=0.000$). Mean SIF of KoMCI was 0.139 and that of KCI was 0.02($p=0.0000$). We presumed that the major difference in the impact factor values wa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KCI does not control the authority of journal names cited in the references.

We strongly recomme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authority especially if Korea Research Foundation wants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CI data in the evaluation of Korean journals.

KEYWORDS

KoMCI, KCI, Medical Journal, Citation Index, Database, Uniqueness, Impact Factor, Authority Control, KoMCI, KCI

1. 서 론

대한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 우리나라 학술지와 게재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을 구성,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미국 Thomson ISI의 Science Citation Index(SCI) 영향력지표(impact factor)와 같은 형식의 인용지표를 2000년 발행학술지부터 인용분석을 통하여 산출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의학분야 학술지 논문에서 국내 의학학술지를 인용하는 횟수는 약 2편 정도이며, 영향력지표는 0.2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대한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 개발사업단 2005). 이러한 자료는 전세계적으로

Thomson ISI사에서 제공하는 Journal Citation Reports(JCR)를 제외하고는 한 국가 단위로서는 유일한 자료이며, 국내 의학분야 학술지 정보의 유통 및 이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KCI(Korean Citation Index)라는 KoMCI와 유사한 자료를 산출하는 작업을 시도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의 KCI 영향력지표를 2005년 7월에 발표하였다. 이 두 가지 인용지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용대상 학술지의 범위이다. KoMCI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 중 대한의학회의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학학술지 평가”를 거쳐 KoreaMed(<http://koreamed.org>)에 등재된 학술지가 대상인 반면, KCI는 전 학문 분야의 학술지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가 대상이다. 2004년도의 경우, KoMCI는 의학학술지 110종의 영향력지표를 발표하였으며, KCI는 그 대상 종수가 1,177종이었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이 연구에서는 두 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출한 영향력지표값을 비교하여 왜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앞으로 KCI 영향력지표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로 삼으려고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확한 영향력지표값 산출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2004년도 KoMCI(대한의학회, 2005)와 KCI 영향력지표(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를 의학학술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KoMCI와 KCI 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기술통계를 기술하였다. 평균값 비교대상 학술지는 KoMCI와 KCI 양쪽에 영향력지표값이 발표된 학술지로 제한하였다. 즉, KoreaMed 학술지이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에 해당하는 학술지 중, 양쪽 모두에 영향력지표값이 있는 경우만 취하여 비교하였다. KCI의 영향력지표는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인 경우에도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은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2003년도의 KCI 영향력지표는 모든 값이 오류이거나 값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어서 제외하고, 2004년도의 KoMCI와 KCI 영향력지표 값만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은 KoMCI가 대상으로 하는 의학 및 의학 관련 학술지 110종의 영향력지표값을 KCI의 그것과 비교한 것이다.

KoMCI IF와 ZIF 값은 대한의학회가 2005년 6월 발행한 『KoMCI 2004: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http://komci.org>) 자료이고, KCI IF와 ZIF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 인용색인정보: Korea Citation Index”(<http://www.krf.or.kr/KCI>)를 2005년 7

〈표 1〉 2004년도 KoMCI와 KCI의 IF/ZIF 값 비교

번호	학술지명	2004					
		KoMCI IF [A]	KCI IF [B]	비율(%) [B]/[A]	KoMCI ZIF [C]	KCI ZIF [D]	비율(%) [D]/[C]
1	가정의학회지	0.187	0.019	10.16	0.101	0.019	18.81
2	감염과화학요법	0.236	0.009	3.81	0.115	0.009	7.83
3	기본간호학회지	0.235			0.106		
4	노인병	-			-		
5	노인정신의학	-			-		
6	당뇨병	0.121	0.012	9.92	0.093	0.012	12.90
7	대한간질학회지	0.073			0.049		
8	대한간호학회지	0.390	0.056	14.36	0.216	0.047	21.76
9	대한골절학회지	0.129	0.012	9.30	0.012	0.006	50.00
10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0.257	0.129	50.19	0.071	0.029	40.85
1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0.109	0.048	44.04	0.047	0.000	0.00
12	대한남성과학회지	0.189	-		0.094	-	
13	대한내과학회지	0.168	0.032	19.05	0.138	0.032	23.19
14	대한내분비학회지	0.078	-		0.048	-	
15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	0.137			0.059		
16	대한대장항문학회지	0.206	0.036	17.48	0.031	0.009	29.03
17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0.027			0.027		
18	대한류마티스학회지	0.133	0.034	25.56	0.023	0.000	0.00
19	대한마취과학회지	0.224	0.073	32.59	0.021	0.007	33.33
20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0.140			0.047		
21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0.187	-		0.044	-	
22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지	0.111			0.056		
23	대한법의학회지	0.137			0.000		
24	대한불임학회지	0.275	-		0.100	-	
25	대한비뇨기과학회지	0.171	0.004	2.34	0.047	0.004	8.51
26	대한산부인과학회지	0.150	0.019	12.67	0.034	0.016	47.06
27	대한산업의학회지	0.349	0.093	26.65	0.023	0.000	0.00
28	대한성형외과학회지	0.130	0.004	3.08	0.028	0.004	14.29
29	대한세포병리학회지	0.057			0.000		
30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			-		
31	대한소아신경학회지	0.152			0.057		
32	대한소아신장학회지	0.129	-		0.057	-	
33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0.147			0.029		
34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0.182	-		0.045	-	
35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0.198	-		0.073	-	
36	대한수혈학회지	0.395			0.158		
37	대한슬관절학회지	0.049			0.033		
38	대한신경과학회지	0.125	0.051	40.80	0.035	0.011	31.43

39	대한신생아학회지	0.118			0.074		
40	대한신장학회지	0.273	0.000	0.00	0.094	0.000	0.00
41	대한약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0.076	0.021	27.63	0.048	0.021	43.75
42	대한안과학회지	0.200	0.066	33.00	0.011	0.004	36.36
43	대한영상의학회지	0.070	0.000	0.00	0.038	0.000	0.00
44	대한외과학회지	0.226	0.063	27.88	0.144	0.013	9.03
45	대한위암학회지	0.264			0.111		
46	대한응급의학회지	0.099	0.022	22.22	0.023	0.005	21.74
47	대한의료정보학회지	0.383	0.147	38.38	0.111	0.044	39.64
48	대한의진균학회지	0.412	0.188	45.63	0.118	0.000	0.00
49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0.169	0.032	18.93	0.023	0.009	39.13
50	대한이식학회지	0.190			0.076		
51	대한입상미생물학회지	0.286			0.143		
52	대한자기공명외과학회지	0.063	-		0.031	-	
53	대한재활의학회지	0.119	0.006	5.04	0.013	0.006	46.15
54	대한정신약물학회지	0.325	0.097	29.85	0.036	0.028	77.78
55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0.022			0.022		
56	대한정형외과학회지	0.063	0.000	0.00	0.031	0.000	0.00
57	대한주산의학잡지	0.023			0.023		
58	대한중환자의학회지	0.000			0.000		
59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0.344	0.019	5.52	0.019	0.019	100.00
60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0.191	0.000	0.00	0.092	0.000	0.00
61	대한척추외과학회지	0.062			0.021		
62	대한체질인류학회지	0.088	0.018	20.45	0.000	0.018	0.00
63	대한초음파의학회지	0.055	0.041	74.55	0.000	0.000	0.00
64	대한치과보철학회지	0.196	0.049	25.00	0.000	0.000	0.00
65	대한통증학회지	0.169	0.096	56.80	0.024	0.000	0.00
66	대한피부과학회지	0.181	0.009	4.97	0.030	0.009	30.00
67	대한해부학회지	0.060	0.009	15.00	0.000	0.000	0.00
68	대한해의학회지	0.121	0.011	9.09	0.028	0.011	39.29
69	대한혈관외과학회지	0.119			0.048		
70	대한혈액학회지	0.196	0.033	16.84	0.109	0.000	0.00
71	대한흉부외과학회지	0.144	0.006	4.17	0.035	0.000	0.00
72	부인종양	-			-		
73	생물정신의학	0.077	-		0.026	-	
74	성인간호학회지	0.275	0.025	9.09	0.167	0.025	14.97
75	소아심장	-			-		
76	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지	0.258	0.015	5.81	0.106	0.015	14.15
77	소아외과	0.098			0.039		
78	수면·정신생리	0.063			0.031		
79	신경정신의학	0.303	0.066	21.78	0.096	0.048	50.00
80	아동간호학회지	0.313	0.025	7.99	0.163	0.025	15.34
81	여성건강간호학회지	0.275			0.176		

82	영남의대학술지	0.024			0.024		
83	예방의학회지	0.272	0.065	23.90	0.076	0.065	85.53
84	의사학	0.211	0.053	25.12	0.000	0.053	0.00
85	재활간호학회지	-			-		
86	전남의대학술지	0.052			0.017		
87	천식및알레르기	0.167	0.035	20.96	0.061	0.018	29.51
88	한국심초음파학회지	0.060			0.020		
89	한국역학회지	0.138			0.069		
90	한국유방암학회지	0.200			0.075		
91	한국의학교육	0.460	-		0.080	-	
92	항공우주의학회지	0.120			0.000		
93	Cancer Res Treat	0.306	0.007	2.29	0.140	0.007	5.00
94	Exp Mol Med	0.445	0.007	1.57	0.048	0.007	14.58
95	Genomics Inform	-			-		
96	Immune Netw	0.038	-		0.026	-	
97	J Bacteriol Virol	0.046	0.023	50.00	0.023	0.023	100.00
98	J Korean Med Sci	0.167	0.037	22.16	0.141	0.027	19.15
99	J Korean Neurosurg Soc	0.197	0.014	7.11	0.024	0.000	0.00
100	J Vet Sci	-	0.018		-	0.018	
101	Korean Circ J	0.168	0.004	2.38	0.066	0.004	6.06
102	Korean J Gastroenterol	0.250	0.022	8.80	0.167	0.022	13.17
103	Korean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0.169			0.056	
104	Korean J Hepatol	0.252	-		0.171	-	
105	Korean J Intern Med	0.210			0.210		
106	Korean J Ophthalmol	0.128			0.106		
107	Korean J Parasitol	0.224	0.060	26.79	0.045	0.015	33.33
108	Korean J Pathol	0.064	0.000	0.00	0.032	0.000	0.00
109	Korean J Pediatr	0.113	0.019	16.81	0.038	0.013	34.21
110	Korean J Physiol Pharmacol	0.056	0.000	0.00	0.009	0.000	0.00
111	Korean J Radiol	0.313	0.000	0.00	0.175	0.000	0.00
112	Tuberc Respir Dis	0.186	-		0.047	-	
113	Yonsei Med J	0.131	0.012	9.16	0.101	0.012	11.88

월 26일에 검색한 결과이다. 이 중에서 KCI IF 나 ZIF 값이 없는 것은, KoreaMed 등재 학술지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가 아닌 경우이며, “ ”로 표시된 것은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이나, KCI 값이 산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영향력지표(IF) 및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ZIF)의 계산은 Thompson ISI의 계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였다(〈그림 1〉).

기술통계, 비교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은 dBSTAT 4.0 (<http://dbstat.com>)을 이용하였다.

1) 2004년도 “가” 학술지의 영향력지표 (IF) = (C+D)/(A+D)
 2) 2004년도 “가” 학술지의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ZIF)=(E+F)/(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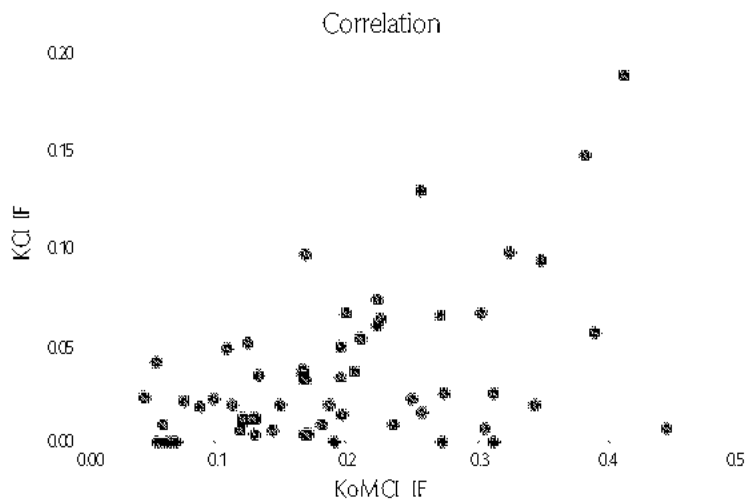
- A : “가” 학술지가 2002년도에 발행한 논문수
- B : “가” 학술지가 2003년도에 발행한 논문수
- C : 2004년에 발행한 학술지에서 2002년에 발행한 “가”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횟수
- D : 2004년에 발행한 학술지에서 2003년에 발행한 “가”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횟수
- E : 2004년에 발행한 학술지 중 “가” 학술지가 자체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 2002년에 발행한 “가”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횟수
- F : 2004년에 발행한 학술지 중 “가” 학술지가 자체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 2003년에 발행한 “가”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횟수

〈그림 1〉 영향력지표(IF) 및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ZIF)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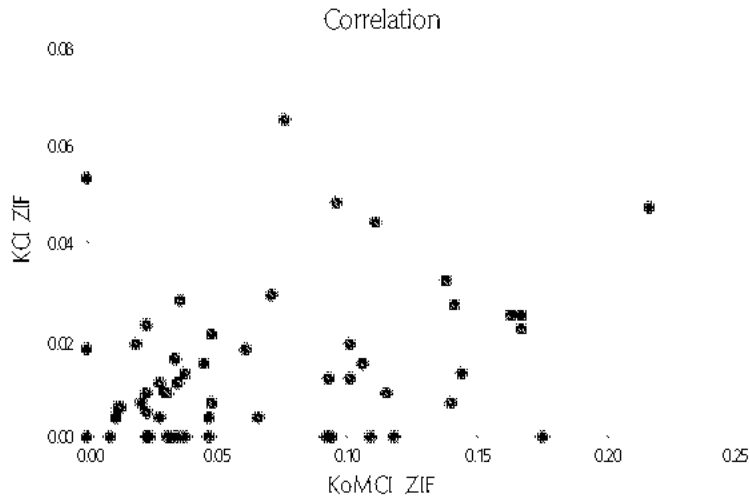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KoMCI와 KCI의 2004년도 데이터 중 영향력지표(IF) 및 자체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 ZIF) 값 모

두가 있는 학술지는 72종이었으며, 그 중 13종은 KCI 값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KoMCI 2004년도 영향력지표가 있으면서 KCI에도 값이 있는 경우는 모두 59종이었다. 이 59종 학술지의 영향력지표(IF), 자체인용



〈그림 2〉 2004년도 KoMCI 및 KCI의 영향력지표(IF) 상관관계



〈그림 3〉 2004년도 KoMCI와 KCI의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ZIF) 상관관계

제외 영향력지표(ZIF) 및 자체인용 영향력지표 (self citation impact factor, SIF)의 기술통계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KoMCI IF 평균은 0.2, KCI IF 평균은 0.03이었으며, KCI 값은 KoMCI의 18%이었다. KoMCI ZIF 평균은 0.06, KCI ZIF 평균은 0.01로, KCI 값은 KoMCI 값의 23.5%이었다. KCI 영향력지표 및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두 영향력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지수는 $r=0.4872$ ($p=0.0001$)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림 2〉). 두 종의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지수는 $r=0.3447$ ($p=0.0075$)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림 3〉). 또한 자체 인용에 의한 영향력지표인 KoMCI SIF는 평균이 0.139, 표준편차 0.08이고, KCI SIF는 평균이 0.02, 표준편차 0.0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두

종의 자체인용 영향력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지수는 $r=0.4609$ ($p=0.0002$)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결 론

앞의 KoMCI와 KCI 영향력지표 비교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KoMCI 값이 KCI 값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 값은 상관계수는 낮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양의 상관관계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두 자료의 호환성으로 볼 때 충분하지 않다.

왜 값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우선,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의 종수 및 성격이 다르다. KoMCI는 KoreaMed 등재 학술지 110종, KCI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1,177여종이다. 마땅히 더 많은 학술지에서 인용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므로, 후자에서 더 높은 값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의학 학술지에서 의학 학술지를 인용할 확률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낮다고 추측한다. 의학학술지의 경우 아무래도 의학학술지 사이에서 인용이 활발할 것이므로, KCI 학술지 전체 중에서 의학학술지만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KCI는 2004년도 KoMCI 대상 학술지 110종 중 72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5%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체인용 제외 영향력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KoMCI 값이 KCI 값보다 높지만, KCI 값이 KoMCI 값보다 높은 학술지가 『의사학』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두 종이 있었다. 이들은 KoreaMed 학술지가 아닌 사학과 영양학 분야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부터 인용을 많이 받은 결과이다. 이 데이터만 보면 KCI 값이 적어도 KoMCI 값의 65%는 되어야 설명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KCI 2004 값은 적어도 KoMCI 2004 값의 18%이므로 역시 차이는 남는다.

또한 자체 인용만을 비교하여도 KoMCI는 0.13, KCI는 0.02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의 원천은 어디일까? 즉, 자체 인용에 의한 영향력지표에서도 KCI가 KoMCI의 15% 정도의 값이 나온다면, KCI 데이터베이스는 참고문헌의 입력에서 85%의 자료를 손실하면서 입력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의의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손실은 어디서 유래할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가장 큰 문제는 KCI의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참고문헌의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의 개념이 없이 학술지에 저자들이 기술한 그대로 자연어 상태로 입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미 KoMCI 2004 자료에서 보듯이 한 학술지가 인용되는 학술지명은 최대 29종이다(대한의학회 2005). 참고로 <표 3>은 KoMCI 2004에서 총 35개 학술지로부터 322회 인용을 받은 『신경정신의학』이 『신경정신의학』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25종의 다른 학술지명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입력하는 참고문헌을 자연어 상태로 학회에서 입력하는 대로 인용문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술지명에 일치시키면 당연히 전체 참고문헌이 해당 학술지명으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자체학술지에서 인용한 자신의 학술지명도 15%만 일치되게 입력하는 상황에서, 다른 학술지에서 그 학술지를 인용하는 데는 더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므로, KCI에서 산출한 값이 KoMCI의 18% 정도일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인용은 자체 학술지에서 하는 국내 의학학술지의 특성상, 자체 학술지에서 조차 전거통제가 안된 인용문헌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을 하면서 정확한 값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자가 기술한 참고문헌 자체의 오류이다. 저자가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

〈표 3〉 "신경정신의학" 학술지의 여러 가지 명칭

번호	학술지명	인용빈도
1	대한신경정신의학	2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2
3	<u>신경정신의학</u>	233
4	신경정신의학회지	3
5	J.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	1
6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
7	J. Korean Neuropsy Assoc	1
8	J. Korean Neuropsych Ass	1
9	J. Korean Neuropsych Assoc	1
10	J. Korean Neuropsychiar Assoc	2
11	J. Korean Neuropsychiatr Asso	2
12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5
13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i	1
14	J. Korean Neuropsychiatri Assoc	1
15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1
16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
17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2
18	J. Korean Neuropsychitric Ass	1
19	J. Korean Neurospsychiatr Assoc	2
20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
21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
22	Korea Neuropsychiatric	1
23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
24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
25	Kr J Neuropsychiatry	1
총 인용빈도		322

출처: 대한의학회 한국 의학학술지 인용색인 개발사업단. 2005. 『KoMCI 2004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서울: 대한의학회. [cited 2005. 7. 26]. <<http://komci.or.kr>>.

지 등의 기술에 오류를 범하였고 편집인이 이것을 찾아서 수정하지 않았다면, KCI 데이터 베이스는 저자가 기술한 그대로 입력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

서 저자의 참고문헌 표기에 오류가 많이 있다는 것은, KoMCI 작업결과 잘 알려져 있다. 저자의 참고문헌 입력에 학술지명 이외에도 권, 호, 페이지의 오류가 있어서 실제 그 학술논문

을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5% 이상이다(KoMCI 미공개 자료). KoMCI에서는 저자의 입력 오류를 학술지명 전거통제 등을 통하여 일부 수정하여 인용분석을 하고 영향력지표를 산출한다.

두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이러한 값의 차이는 대상이 되는 학술지 종수의 차이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자체인용에 의한 영향력지표를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참고문헌에 기술한 학술지명의 전거통제를 하지 않고 자연어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일부는 저자의 입력 오류의 수정 여부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7월 소식지를 보면, “학술연구업적의 객관적 평가 기준의 척도가 될 KCI(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가 국내 최초로 재단에서 완성되었다.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이 완성됨에 따라 재단은 앞으로 학술연구업적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2005).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는 2002년도부터 국내의학학술지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0년 이후 국내의학학술지 영향력지표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었으므로 전 학문 분야로 보면 국내 최초이나, 의학 분야로 보면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두번째, 앞에서 분석하여 본 것

과 같이 KCI에는 데이터 입력오류가 존재하고,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연구업적의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술적인 자세가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보완을 한다고 하여도 전거통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어느 기관에서나 이러한 색인 정보를 다룰 때 향후 과제로, 학술지의 전거통제를 하고, 저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작업을 통하여 학술지의 영향력지표값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 많은 경비와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투자가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대한의학회 한국 의학학술지 인용색인 개발사업단. 2005. 『KoMCI 2004 한국의학 학술지 인용정보』. 서울: 대한의학회. [인용 2005. 7. 26].
 <<http://komci.or.kr>>.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국내학술지 인용색인정보』.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인용 2005. 7. 26]
 <<http://www.krf.or.kr/kci>>.
- dBSTAT. 2000. dBSTAT: Database Graphic Statistics 4.0. [cited 2005. 7. 26].
 <<http://www.dbstat.com>>.